

SQ3R 이란?



SQ3R 독서법(Robinson, 1940)은 학습과 기억의 심리학을 토대로 실제 학습상황과 실험을 근거로 만들어진 읽기 전략으로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효율적인 모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글의 정보들을 단기 기억으로 바꾸고 반복의 과정을 통해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읽기에 적용한 것으로 읽기 과정을 **Survey(개관) - Question(질문) - Read(읽기) - Recite(암송) - Review(재검토)** 5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그럼 SQ3R의 각 단계를 살펴볼까요?

Survey

[책을 읽기 전에] 내용 예측해보기

책을 읽기 전에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무엇에 초점을 맞춰 읽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책의 제목, 부제목, 도입부, 요약 부분이나 굵은 글씨체, 다른 글꼴로 표기된 문단, 단어를 훑어봅니다. 책 속의 그림, 차트, 그래프 등의 시각자료도 살펴봅니다.

Question

[책을 훑어보며] 질문 만들기

Survey(개관) 단계에서 떠오른 여러 질문을 적어보는 단계입니다. 책에 나오는 제목, 부제목을 육하원칙에 따라 의문문으로 바꾸어보거나 책의 내용과 관련하여 이미 알고 있는 것이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글의 주제나 저자가 글을 쓴 의도,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 질문해보면서 책 내용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생겨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보다 활발한 인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ad

[책을 읽으며] 핵심 문장 찾아보기

책을 읽으며, Question(질문) 단계에서 만든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확인하는 단계로 능동적인 탐색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책 내용의 핵심문장, 연결되는 세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며 윤곽을 그려봅니다. 핵심적인 문장, 단어에 밑줄을 긋거나 기록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책 읽는 속도를 조절하여 더 천천히 읽거나 다시 읽습니다.

Recite

[책을 읽은 후에] 이야기 속으로

책을 읽은 후 만든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입을 열어 말해보는 단계입니다. 기록한 것을 보지 않고 주요 내용들을 자신의 말로 표현해보거나, 친구, 부모님,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봅니다. 이 활동을 통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을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을 어려워한다면 해당 부분을 다시 읽도록 합니다.

Review

[책을 읽은 후에] 다시 보기

핵심 내용과 관련된 세부 내용들을 확인하고 그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책, 활동지를 다시 살펴보는 단계입니다. 머릿속으로 전체 내용을 떠올려보고 주제들을 연결하여 깊이 생각해봅니다. 비교, 대조, 재조직, 범주화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연결하여 배경지식을 확장하고, 같은 주제를 다른 책 또는 다른 입장에서 쓰인 책을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질문하고 상상하는 힘을 길러주는 독서활동을 함께 시작해요!

